

광주 서구, '우리동네 오잇길'로 나눔 일상화



우리동네 오잇길 포스터

/광주 서구청 제공

생활권 걷기코스 조성...QR기부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학교·기업·기관·단체 대상 '나눔 파트너' 모집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의 일상 속 걷기를 나눔으로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 '우리동네 오잇길'을 본격 추진하고 학교·기업·기관·주민단체를 대상으로 '나눔 파트너'를 모집한다. '우리동네 오잇길'은 주민이 생활권 내 걷기코스를 이용하며 걷기와 기부를 함께 실천하는 주민참여형 생활복지 플랫폼이다. 참여자들은 '1보 1원, 5천보'라는 나눔 목표 아래 약 3km, 50분 거리의 코스를 걸으며 현장 QR코드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부에 참여한다.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며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에 사용

다. '우리동네 오잇길'은 5개 권역으로 나눠 상무시민·동림유적근린·마륵근린·맛고을어린이·5·18기념공원 등 주민 생활권 내 대표 공원에 조성했다. 각 코스는 도심 힐링, 생태 치유, 가족 산책, 역사·청년문화, 평화·명상 등 권역별 특색을 반영했다. '우리동네 오잇길' 나눔 파트너 모집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기업·기관·단체는 서구청 누리집 공고의 관련서류를 준비해 전자우편(khj1975@korea.kr) 또는 팩스(062-360-7341)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참여기관에 '우리동네 오잇길 나눔 파트너' 인증을 부여하고 우수 참여기관 표창, SNS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 사례를 홍보

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잠시 미뤄둔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동네 오잇길은 주민의 일상 속 한 걸음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사업인 만큼 학교와 기업,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23년부터 총 6차례의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열어 9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참가비 5천원 등으로 1억 13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가족돌봄청년 100명에게 응원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가영 기자

남구, 상반기 위기가구 긴급복지 2,300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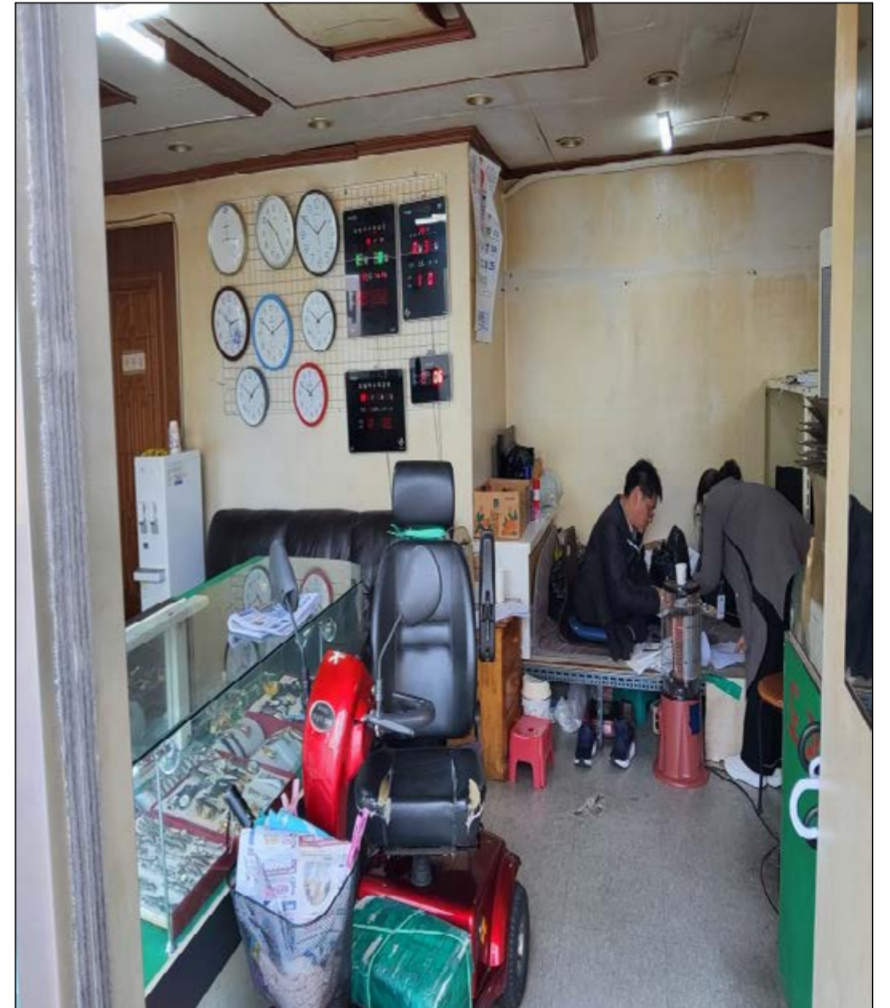
올해 예산 40억여원 중 23억원 집행
맞춤형 지원 연계해 복지안전망 강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2,300여건의 긴급복지 지원에 나서며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남구는 9일 "올해 긴급복지 예산 40억여원 가운데 23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과 질병, 폐업, 화재, 가정폭력, 중대한 부상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남구는 복지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전달 인력,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상반기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생계 지원이 1,435건 17억 2,7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의료비와 연료비 지원이 각각 245건 5억 700만원과 617건에 9,6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남구는 긴급복지지원

법으로는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노랑 호루라기 사업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42세대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약 5,000만원 가량을 지원해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이처럼 남구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통합사례 관리, 자활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자립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으며, 민간 복지 자원을 활용해 생활 안정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이 위기 상황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지원 결정까지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가구에는 생활 여건과 복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 지원 가능 여부도 살피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1인 가구, 중장년층 위기가구 등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문수 기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가정 방문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